“공존의 빛으로 상생의 미래를 열자”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생명의 환희가 온 누리에 가득한 이 아름다운 봄날,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아래 함께하신 모든 인연에 깊은 감사와 축원의 인사를 올립니다.

연초록 잎새가 바람에 일렁이고 저마다의 빛깔로 피어난 꽃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 계절은, 다름이 곧 갈등이 아니라 공존의 아름다움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천육백여 년 전, 아기 부처님께서 외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후는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한 자각의 서곡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가르침인 동시에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자비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내면의 고립과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되 지혜는 갈급하고, 세상은 연결되어 있으나 온기는 식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중략〉

한국불교는 국민들의 불안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 공존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명상’을 통해 국민의 마음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개인을 넘어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은 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온갖 편견과 미움을 녹여내고 모두의 얼굴을 환히 비추는 ‘공존의 빛’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의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억눌린 자는 자유를, 슬픈 자는 위로를, 병든 자는 쾌차를 얻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청정한 본마음 회복해야”

덕수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오늘은 기쁜 날, 사월 초파일, 진리의 태양이시며, 인류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도량마다 거리마다 찬란한 빛을 뿜는 봉축의 등은 자비광명의 등이요,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무량 환희의 등입니다.

2천6백 년 전 룸비니 동산에서 빛으로 오신 부처님께서는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선언하시고, ‘삼계개고 아당안지’의 대 서원을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장엄하게 오신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에 귀의한 불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무상의 이치를 깨쳐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육근이 청정하고 자성이 청정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탐진치 3독심에 물들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청정한 본마음을 회복하여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참다운 불제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불국토가 이루지기를 바랍니다.

“공존공영의 인류애 실천”

능원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감동교화(感動敎化) 실천하여
자성중생(自性衆生) 제도하고
이웃과 사회가 화합하며
평화롭기를 서원합시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지혜(智慧)와 자비(慈悲)의 화신(化身)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모든 생명의 존엄을 설하신 것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스스로 존엄함을 실감하고 뭇 중생이 존귀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어둡고 탐욕과 이기심에 눈먼 작금의 세계
아비규환(阿鼻叫喚) 전장(戰場)의 참화(慘禍)는 세계 곳곳에서 여전하고 화탕지옥(火湯地獄) 같은 정쟁(政爭)과 갈등, 빈곤의 악순환 또한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처해 있는 주변을 돌아봅시다. 내려놓고 비우면서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치유하고 정화해야 하겠습니다. 〈중략〉

최근 달 탐사를 마치고 귀환한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서 바라볼 때 지구가 하나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인류로서 지구에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지구촌은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동업의 은혜를 깨달아 공존공영의 인류애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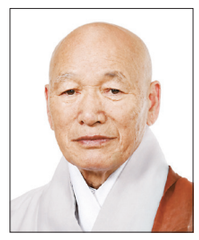
깨달음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받들어서 사랑하고 베풀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희로운 오늘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신을 성찰(省察)하고 참회(懺悔)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진실법(眞實法)을 세워 가족과 이웃을 제도합시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을 지극한 마음으로 봉축합시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중생 향한 자비행 멈춤 없다”

도각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부대중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참불자가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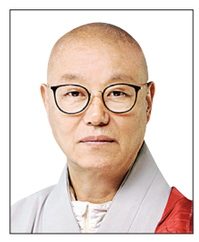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높은 연화대 위에서 홀로 평안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배고픈 자에게 밥이 되고 병든 자에게 약이 되듯, 세상의 아픔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유등(油燈)과 연등(燃燈)에는 바로 이러한 실천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깨치고 진리를 향하는 연등과 더불어, 맑은 기름을 심지에 적셔 불을 밝히는 유등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태워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채워야 하듯, 중생을 향한 우리의 자비행도 멈춤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도량에 정성껏 밝힌 유등과 연등의 불빛이 내 안의 탐욕을 비워내는 지혜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껴안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사부대중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희망의 빛으로 환히 타오르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아픔 나누고 치유하는 데 앞장”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한 이 뜻깊은 날, 부처님 오신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모든 국민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덜고 모두가 함께 행복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는 바로 그 자비와 지혜의 상징이며,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끝나지 않는 전쟁과 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불러온 이상기후는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환경 위기는 인간 존재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와 상생의 진리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서민들의 삶을 더욱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 전반에 긴장과 대립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대립이 아닌, 이해와 화합의 마음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중략〉

한국불교태고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종단은 수행과 포교를 통해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나눔과 자비의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과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적 가치를 널리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전국의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전쟁이 멈추고, 자연이 회복되며, 우리 사회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서원하며 우리 모두 보살행을 널리 펼칩시다. 감사합니다.

“마음 맑혀야 평화도 온다”

록경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시어, 무명의 어둠에 갇힌 세계를 지혜의 광명으로 밝히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사부대중과 함께 봉축하며,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은 인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탐진치(貪瞋痴) 삼독에서 비롯됩니다. 문명과 지혜가 파괴의 도구로 변질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공존의 길을 다시 모색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노와 혐오 대신 화해와 이해의 언어를 선택하고, 배타적 집착 대신 상생의 지혜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삼밀 수행으로 마음을 맑히고, 우리의 기도와 수행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하기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충만하여 진정한 평화가 꽃피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옴 마니 반메 훔.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방 장 여산정여 대종사
주 지 산해정오
신도회장 도림이윤희

금정총림 사부대중 일동

금정산 산마루의 **금빛 우물**,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www.beomeo.kr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051-508-3122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